



2020년 사순절

주의 십자가가 사랑하리...

2월 26일(수) ~ 4월 11일(토)

가정예배 주간묵상집

- 다섯째주 -

| 주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 | | 2/26 재의 수요일 | 27 2일 | 28 3일 | 29 4일 |
| 3/1 사순절 1주 | 2 5일 | 3 6일 | 4 7일 | 5 8일 | 6 9일 | 7 10일 |
| 8 사순절 2주 | 9 11일 | 10 12일 | 11 13일 | 12 14일 | 13 15일 | 14 16일 |
| 15 사순절 3주 | 16 17일 | 17 18일 | 18 19일 | 19 20일 | 20 21일 | 21 22일 |
| 22 사순절 4주 | 23 23일차 | 24 24일차 | 25 25일차 | 26 26일차 | 27 27일차 | 28 28일차 |
| 29 사순절 5주 | 30 29일 | 31 30일 | 4/1 31일 | 2 32일 | 3 33일 | 4 34일 |
| 5 종려 주일 | 6 35일 | 7 36일 | 8 37일 | 9 38일 | 10 39일 | 11 40일 |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6~10) | | | | | | |
| 12 부활 주일 | => 총동원주일 | | | | | |

마 7: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선택은 내려진 결단보다는 그 선택을 위한 준비와 그 사람의 품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단은 그것을 내리는 사람의 됴됨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영적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초를 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성숙함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요령만 배운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 확인할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이 성령의 빛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 성령에 의해 인도된 예수님처럼,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느끼도록 작용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 그 나무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사과 나무에 배를 걸어둔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하며 보낼까를 걱정하기 보다는, 먼저 나는 어떤 나무인가를 묵상합시다.

시 105:5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조용히 앉아 반성할 시간이 없으니, 전문가 들인 당신네들이 우리가 좀 더 밝게 볼 수 있도록,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에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중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각자의 일생의 중대한 시기들을 다시 기억해 봄으로써 거기서 일관된 몇 가지 흐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흘러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의 기억 속에 떠올려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하는 묵상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때 나의 앞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지난날들을 꼼꼼이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언제 간섭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러한 기억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법입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좋은 선택을 위해선 결국 나 자신을 밖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나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꼴입니다. 옛 수도사들은 “각자는 영성적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의 의지와 자기에게 고유한 이익들에서 빠져나오는 정도에 따라 발전하게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어떤 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나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타자(다른 존재)에 대한 체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사람이 되신 그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사람이 되신 분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주님께 대한 지식을 간청하십시오, 그분을 더 잘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이는 결국 나 자신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함을 알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욕망을 일깨웁니다.

이제는 나와 내 안에 있는 그분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유치한 대화가 되겠지만, 점점 성숙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옛 자아의 모습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사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 13: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선택에 관한 묵상을 해왔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날, 세족식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창조주가 자기 피조물의 발 앞에 종처럼 구부리고 있으니, 그것은 피조물이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한꺼번에 배우도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발 앞에 구부리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형제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에게 예수님이 됩니다.

이 계명은 내가 그분께 속하고 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의 징표입니다(요13:33-35). 요한의 편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요일4:12).

오늘은 나의 발 앞에 구부리어 나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세족례의 비밀을 더욱 깊이 묵상해 봅시다.

눅 22: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
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
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신비에 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 성찬식의 의미를 묵상함으로 그
리스도와의 일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한정된 인간의 세
계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이 성만찬의 신비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의 기본적인 의미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
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걷는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몸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의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통해 자유롭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내
가 고난을 받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 이는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인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요, 인간의 세계 속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몸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에 대한 깊은 묵상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풍요로운 신비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요셉이라는 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특징되는 생명입니다. 인간들이 전달하는 생명이라는 것, 인간이 낳는 생명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죽어 없어지는 세대들의 순환 속으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취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비슷한 육체이지만, 이 육체는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믿음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육체는 성령 안에서 믿을 때에만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육체는 소용이 없으나 영은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주간묵상집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1. 가정예배

- ①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②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
- ③ 묵상한 내용을 서로 나눔 ④ 묵상 글을 함께 읽습니다.
- ⑤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심기도합니다.

2.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3. 중보기도

- ① 회개: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과 나라의 죄악을 품고 회개 기도합니다.
- ② 교회의 평강과 영적 회복,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③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 ④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온 나라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코로나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 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 의료진,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 ⑥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가 무너지게 하시고, 거짓 복음에 메여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 주옵소서.
- ⑦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